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니콜레티 조정관, 전북대서 특강

"학생 FAO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도울 것"

세계 식량안보 현황

FAO의 역할 등 설명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식량안보위원회 고위급 전문가 패널인 에바리스트 니콜레티(Evariste Nicoletis) 조정관이 23일 전북대 학생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역할, 식량안보와 농업과학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전북대 학생들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 인턴십 및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식량안보위원회 고위급 전문가 패널인 에바리스트 니콜레티(Evariste Nicoletis) 조정관이 23일 전북대 학생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니콜레티 조정관은 이날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역할, 식량안보와 농업과학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UN의 조직 구조와 목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계 식량안보 현황과 식량안보를 위한 FAO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또한 FAO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영주니어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특강 후에는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가져온 식량안보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의 변화, 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양오봉 총장은 프랑스에서 에바리스트 니콜레티 조정관을 만나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개발과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오봉 총장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역할과 발전 등에 관심이 많은 우리대학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생명 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우수공무원 8명 선정

최우수상에 대변인실 권미라 주무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제9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의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교직원을 격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두 차례 시상한다.

심의 결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에는 대변인실 권미라 주무관(사진)이 선정됐다. 권 주무관은 전북교육소식을 손쉽게 알릴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또 우수상은 중등교육과 박병언 주무관, 군산여상 이필수 주무관, 장려상은 미래교육과 김형주 주무관, 행정과 안진영 주무관, 한들중 이미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교육공무직원에서는 전북외국어고 김선아 교무실무사와 학생수련원 신해정 수련지도사가 장려상에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및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흥열 감사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공직사회에서의 불합리함을 걷어내고 적극적·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부작위, 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024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설명회 열고 특수교육기관 확충·지원 인력 증원 등 설명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장미림 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에듀테크 접근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특수교육 설명회에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업무 담당자, 교육전문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장미림 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에듀테크 접근성을, 한울학교 강나혜 교사가 스마트에듀 교육과정 운영사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 주요 특수교육 정책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으로 교육 선택권 확대 △특수교육지원 인력 증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비 △전북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용역연구 실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조기발견 진단비 지원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체험학습 운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는 14개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설명회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 장애가 의심되는 0세부터 3세까지의 영아 대상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 지원,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유형별 거점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센터의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도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삶에 대한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3 회계연도 결산업무 담당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교육연수원에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결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또 재정운영 결과를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춰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전달하고, 원활한 결산 추진을 위한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교육, 결산서 작성요령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2023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오는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4월 중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6월 도의회 결산승인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확한 결산작업이 이뤄지고, 재정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 LiFE 2.0 사업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북 LiFE 2.0 사업 추진단 출범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 LiFE 2.0 사업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LiFE 2.0 추진단은 전북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고등 평생교육 체제의 확산과 RISE 체계에서의 직업 평생교육 준비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군장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 LiFE 2.0 참여대학 사업 관계자와 전북도, JB지산학협력단, 평생교육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혁신추진단 정광모 단장,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현웅 원장의 소개를 시작으로 전북 LiFE 2.0 사업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한동숭 학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대표자와 전북 LiFE 2.0 사업 참여대학 대표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 추진단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의 첫 순서로 전북대 권인탁 교수가 '지자체-대학의 연계 기반 평생·고등교육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고등 평생 교육 체제는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비학위과정 체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전북 RISE 체계에서 고등 평생교육 안착을 위해서는 산업체의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범수 실장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하기 위해서는 LiFE 사업의 운영 규모 확대 및 대학 내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대학-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황태규 학장이 '전북 특별자치도 新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위한 고등 평생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황 학장은 고등 평생교육을 위한 전북 新 인적자원개발 방향으로 직업교육, 시민교육, 디지털 교육, 지역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역 노동인구의 충원 방향으로 기존 인구의 노동 수명연장을 위해 新고등 평생교육 특구를 설치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 브랜드 교육상품으로 개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군장대 양향숙 평생교육본부장, 우석대 박경희 평생교육본부장, 전주대 장현애 평생학습지원센터장, 호원대 김은미 K-미래인재대학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LiFE 2.0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한편, LiFE 2.0(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 대학을 지역 내 성인학습자를 평생교육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대학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수요·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재생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맞춤형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전북대학교 부안군 ESG연고산업육성사업단(단장 김덕수)은 지난 3~21일까지 대학생 ESG 기초교육 및 ISO 국제공인 자격인증 심사원 특별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 일환으로 주말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업인증원과 공동으로 시행한 ESG 국제공인 자격인증 심사원 특별 양성과정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ESG 기초교육 과정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진행됐다.

경영시스템심사(AMS)와 환경경영시스템심사(EMS) 과정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은 ESG심사를 위한 ISO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반적 사항과 인증 프로세스 및 심사활동, 국제 환경심사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장은성 기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학생' 모집

25일까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10개 참여대학 학생 등 대상

'JST(Jeonbuk Saemangeum Tech) 공유대학 융합전공'에 참여할 전북지역 대학생을 모집한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올해부터 5년간 2,143억원이 투입되는 RIS 사업을 통해 도내 10개 대학으로 구성된 혁신플랫폼이 참여하는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원)'을 신설해 3월부터 전북 지역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융합실무인재, 고급연구인재, 현장전문인재, 사회창의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10개 참여대학 학생들로, 분야와 모집인원은 전공심화 270명, 기초전공과정 60명 등 총 330명이다. 오는 29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31일 면접고사 이후 2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5일까지며, 지원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JST 공유대학 원서지원 사이트(https://jstu.recruiter.co.kr)에서 하면 된다.

전공심화과정은 △미래수송기기학부 90명(친환경모빌리티 30명, 스마트모빌리티SW 30명, 특수목적수송기기 30명), △에너지신산업학부 90명(이차전지 30명, 수소에너지 30명, 재생에너지 30명), △농생명·바이오학부 90명(디지털농업 30명, 푸드테크 30명, 메디컬·바이오 30명) 등이다. 다만 전공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고,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기초전공과정은 전북지역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비이공계 학생 중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수송기기학부 20명, 에너지신산업학부 20명, 농생명·바이오학부 20명 등 모두 60명을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063-219-5803/58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다. 생활지원금 형태로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는 혁신인재지원금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혁신인재장학금도 있다.

김현경 RIS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JST 공유대학의 교육혁신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소통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